

##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Effects of Mother's Support and Peer Acceptance on Children's  
Self-Esteem : The Moderating Effects of a Best Friend's Support

박 경 리\*\*

Park, Kyong Lee

김 경 연\*\*\*

Kim, Kyong Ye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support and peer acceptance on children's domain specific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est friend's support. The subjects were 272 4<sup>th</sup> and 349 8<sup>th</sup> grader in Chin-ju.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PC+ program, including Cronbach's  $\alpha$ ,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two-way ANOVA. Findings were that peer acceptance had a higher influence on academic-general self, peer-related self, physical-appearance self, personality self and physical-competence self than did mo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had a higher influence on home self than did peer acceptance. Best friend's support and mother's support interacted with children's physical-appearance self and physical-competence self. Best friend's support and peer acceptance interacted with student's peer-related self.

**Key Words :**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수용도(peer acceptance), 어머니의 지지(mother's support)

\* 접수 2001년 6월 30일, 채택 2001년 7월 28일

\* 2000년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E-mail : child98@hotmail.com

\*\*\*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 I. 서 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김경연, 1987; 김희화, 1998)라고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건전한 인성발달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Harter, 1983; Wylie, 1979),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중의 하나(Manning, 1989)로 간주된다. 초기에는 하나의 단일 영역적 개념으로 간주되던 자아존중감은 최근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Crandall, 1973; Harter, 1982; 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에 의해 연구의 불일치가 자아존중감의 다영역성을 무시한데 기인한다고 지적되면서 다영역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김희화, 김경연, 1996, 1998; 최보가 전귀연, 1993; Harter, 1982;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에게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되는 대상인 어머니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되는 또래가 중요한 타인이 된다.

어머니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아동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아동에게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친밀한 타인이다(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된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Cohen &

Hoberman, 1983) 유능감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며(Bowlby, 1969) 좌절과 변화에 대해 인내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줌으로써(윤소연, 199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된다.

또래는 또래수용도(peer acceptance)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또래에 의해 높게 수용되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또래에 의해 낮게 수용되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신경증, 정신병, 자살, 비행, 퇴학 등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나아가 성인기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양원경과 도현심, 1999). 이처럼 또래수용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또래수용도 측정방법은 개별아동의 주관적 지각정도를 간과하므로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된 차이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연구자(Asher & Parker, 1989; Duck, 1983; Parker & Gottman, 1989; Youniss, 1980)들은 또래수용도 뿐만 아니라 우정관계(friendship)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정관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우정관계의 독립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효과검증에 있어 우정관계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Furman과 Buhrmester(1985)에 의하면, 아동은 다수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적인 아동일수록 특정 관계망에서 획득하지 못한 것을 다른 관계망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령기 아동에 있어 가정환경과 또래환경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이고, 부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얻을 수 없었던 심리적, 물질적 지지를 또래환경에서 획득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즉, 어머니 지지의 결핍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손상이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George와 Hartmann(1996)과 같은 학자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낮게 수용되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몇몇의 우정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또래와의 우정관계 형성에도 실패한 아동과 비교할 때, 앞으로의 사회적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고 주장한다. 즉 낮은 지위에 있는 아동이 또래와의 우정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발달상의 부정적 측면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arker & Asher, 1987; Vandl & Hembree, 1994). 따라서 또래로부터 낮게 수용됨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손상은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정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짝친구의 유무 혹은 단짝친구의 수에 한정하여 조사되어 왔는데, Bukowski와 Hoza(1989)는 친구를 가지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의 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단짝친구의 수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Sullivan(1953)은 우정관계의 지지적인 효과는 우정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며, 상호적일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정관계의 하위변인으로서 단짝친구의 수나 단짝친구의 유무보다는 그 단짝친구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짝친구의 지지가 아동의 발달에 더 중요한 변

인으로 예측된다.

한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와 또래의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들에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하면서 또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Harter, 1988a)가 있는 반면, 청년기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머니라는 연구결과(Hoffman, Ushpiz, Lery-Shiff, 1988)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은 연령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영역별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지 알아보기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영향력은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또래수용도의 영향력은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621명이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들에 대한 변별적 이해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래지위 및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학년 차를 둔 것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이 성취되고,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와의 공유가 어려워지며,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Parker & Asher, 1987) 또래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지지 및 단짝친구의 지지

어머니의 지지 및 단짝친구의 지지는 김수민(1988)이 번안 수정한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조직망 관계검사(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 NRI) 10개 영역 중 친밀감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6문항을 어머니와 단짝친구에 대하여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님'의 1점부터 '매우 많이'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6~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단짝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어머니의 지지 및 단짝친구의 지지 모두 Cronbach  $\alpha$  .87로 나타났다.

#### 2) 또래수용도<sup>1)</sup>

아동이 또래로부터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세 가지 기준(1. 좋아한다. 2.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 3. 운동, 게임, 공부 등을 같이 하고 싶어한다)에 대하여 긍우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그렇게 여기는지를 응답케 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님'의 1점부터 '매우 많이'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3~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높게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84로 나타났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김희화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 중 교사관련 자아를 제외한 6개 영역 44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총 점수범위는 44~2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의 6개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학업 및 전반적 자아 10문항, 친구관련 자아 9문항, 가정적 자아 6문항, 신체외모 자아 7문항, 성격적 자아 6문항, 신체능력 자아 6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자아존중감 영역별 신뢰도 검증 결과, 학업 및 전반적

1) 지금까지 이루어진 또래수용도 측정방법인 또래지명법과 또래평정법은 개별아동의 주관적 지각정도를 간과하므로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된 차이점이 고려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Asher, et al., 1985, 1986; Coie et al., 1982, 1983; Dodge, 1983)에서 사용된 문항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아동자신에게 응답토록 하였음.

자아는 Cronbach  $\alpha$  .88이고 친구관련 자아는 Cronbach  $\alpha$  .88, 가정적 자아는 Cronbach  $\alpha$  .79, 신체외모 자아는 Cronbach  $\alpha$  .72, 신체능력 자아는 Cronbach  $\alpha$  .72, 성격적 자아는 Cronbach  $\alpha$  .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Cronbach  $\alpha$  .92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예비조사는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척도구성 용 문항의 선별 및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1999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2개

의 초등학교와 2개의 남녀중학교 총 16학급의 남·녀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636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621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에 따라 피어슨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규명에 앞서 요인들간의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08이하로 나타나 다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김해식, 1987).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602)

변 인	1	2	3	4	5	6	7	8	9
1. 학업 및 전반 자아	1.00								
2. 친구관련 자아	.58***	1.00							
3. 가정적 자아	.44***	.38***	1.00						
4. 신체외모 자아	.48***	.47***	.38***	1.00					
5. 성격적 자아	.13**	.14**	.07	.16***	1.00				
6. 신체능력 자아	.44***	.41***	.23***	.43***	.14***	1.00			
7. 어머니의 지지	.31***	.24***	.55***	.26***	-.07	-.08	1.00		
8. 또래수용도	.41***	.56***	.20***	.30***	.15***	.02	.16***	1.00	
9. 단짝친구의 지지	.23***	.56***	.13**	.17***	.00	.06	.15***	.43***	1.00

\*p<.05 \*\*p<.01 \*\*\*p<.001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영역별 또래수용도 및 어머니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N=465)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 <sup>2</sup>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	또래수용도	.38***	.21	62.26***
	어머니의 지지	.21***		
친구관련 자아	또래수용도	.54***	.34	117.86***
	어머니의 지지	.15***		
가정적 자아	어머니의 지지	.52***	.32	107.32***
	또래수용도	.14***		
신체외모 자아	또래수용도	.30***	.16	44.37***
	어머니의 지지	.23***		
성격적 자아	또래수용도	.23***	.06	13.47***
	어머니의 지지	-.08		
신체능력 자아	또래수용도	.35***	.14	38.77***
	어머니의 지지	.10*		

\*p<.05 \*\*\*p<.001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경우 또래수용도( $\beta=.38$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21$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54$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5$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친구관련 자아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beta=.52$ ,  $p<.001$ ), 또래수용도( $\beta=.14$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가정적 자아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30$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23$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신체외모 자아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23$ ,  $p<.001$ )가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은

성격적 자아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35$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0$ ,  $p<.05$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신체능력 자아의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학년2)에 따른 자아존중감 영역별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 (N=456)

종속변인	학년	독립변인	$\beta$	R <sup>2</sup>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41***	.23	25.68***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6*		
친구관련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성	.42***	.22	41.51***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7**		
가정적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57***	.38	52.99***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3*		
신체외모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51***	.31	63.52***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5**		
성격적 자아	초등학생	어머니의 지지	.33***	.21	22.61***
	중학생	또래수용도	.24***		
신체능력 자아	초등학생	어머니의 지지	.56***	.35	79.17***
	중학생	또래수용도	.14**		
성격적 자아	초등학생	어머니의 지지	.32***	.22	24.56***
	중학생	또래수용도	.28***		
신체외모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33***	.15	24.72***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5**		
성격적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22**	.05	4.25*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12		
신체능력 자아	초등학생	또래수용도	.26***	.07	10.43***
	중학생	어머니의 지지	-.09		

\*p<.05 \*\*p<.01 \*\*\*p<.001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2) 연령차는 분석시 학년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자아존중감 영역별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 또래수용도( $\beta=.41$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6$ ,  $p<.05$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도 또래수용도( $\beta=.42$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7$ ,  $p<.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57$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3$ ,  $p<.05$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서도 또래수용도( $\beta=.51$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5$ ,  $p<.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가정적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beta=.33$ ,  $p<.001$ ), 또래수용도( $\beta=.24$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가정적 자아에서도 어머니의 지지( $\beta=.56$ ,  $p<.001$ ), 또래수용도( $\beta=.14$ ,  $p<.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신체외모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beta=.32$ ,  $p<.001$ ), 또래수용도( $\beta=.28$ ,  $p<.0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신체외모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33$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5$ ,  $p<.0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성격적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22$ ,  $p<.01$ )가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성격적 자아에서도 또래수용도( $\beta=.26$ ,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39$ ,  $p<.001$ ), 어머니의 지지( $\beta=.14$ ,  $p<.05$ )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beta=.34$ ,  $p<.00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 지지의 상호작용<sup>3)</sup>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영향력이 단짝친구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즉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의 지지가 상호작용효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의 지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집단<sup>4)</sup>과 하집단<sup>5)</sup>으로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외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라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

<표 4>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의 지지에 따른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의 평균

자아존중감 영역	단짝친구의 지지	어머니의 지지	
		상집단(N)	하집단(N)
신체외모	상집단	22.61(193)	21.68(105)
자아	하집단	22.39(155)	19.54(146)
신체능력	상집단	19.88(196)	19.69(102)
자아	하집단	19.79(154)	17.47(151)

3) 상호작용효과란 한가지 독립변인의 효과가 다른 독립변인의 실험조건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김영채, 1985).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법은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4) 어머니의 지지 상집단은 22.81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되며, 단짝친구의 지지 상집단은 20.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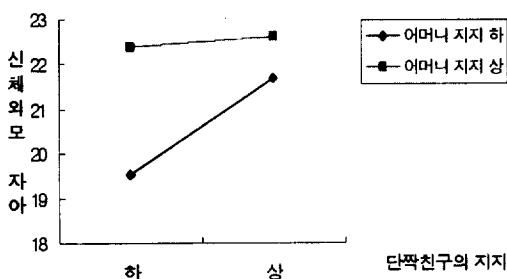
5) 어머니의 지지 하집단은 22.81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되며, 단짝친구의 지지 하집단은 20.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된다.

았다.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의 지지 수준에 따른 신체외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의 평균치는 <표 3>과 같으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지지와 단짝친구의 지지에 따른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영역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값
신체외모 자아 (N=598)	어머니의 지지(A)	1	536.70	536.70	17.47***
	단짝친구의 지지(B)	1	151.47	151.47	4.93*
	A*B	1	131.08	131.08	4.27*
	오차	595	18280.09	30.72	
신체능력 자아 (N=602)	어머니의 지지(A)	1	251.11	251.11	10.87***
	단짝친구의 지지(B)	1	139.52	139.52	6.04*
	A*B	1	160.26	160.26	6.93**
	오차	599	13843.81	23.11	

\*p<.05 \*\*p<.01 \*\*\*p<.001



<그림 1>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어머니 지지와 단짝친구 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1>에 의하면, 어머니의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은 단짝친구의 지지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의 수준은 높지만, 어머니의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단짝친구의 지지 수준에 따라 아

동의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즉, 어머니의 지지가 낮더라도 단짝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아동의 신체능력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 3.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의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또래수용도의 영향력이 단짝친구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즉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가 상호작용 효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집단<sup>6)</sup>과 하집단<sup>7)</sup>으로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동의 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또

<표 6>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에 따른 친구관련 자아의 평균

자아존중감 영역	단짝친구의 지지	또래수용도	
		상집단(N)	하집단(N)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상집단	32.56(160)	30.91(43)
	하집단	27.61(77)	22.53(57)

6) 또래수용도의 상집단은 8.6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되며, 단짝친구의 지지 상집단은 20.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된다.

7) 또래수용도의 하집단은 8.63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되며, 단짝친구의 지지 하집단은 20.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대상자로 구성된다.

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 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의 평균치는 <표 6>과 같으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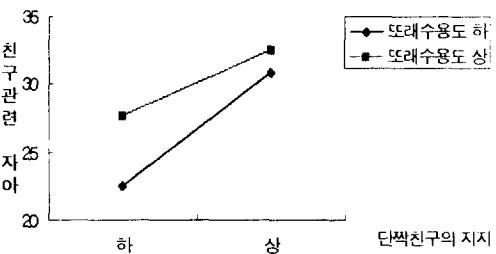
<표 7>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의 지지에 따른 친구관련 자아의 이원변량분석

자아존중감 영역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값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N=336)	또래수용도(A) 단짝친구의 지지(B) A*B 오차	1 1 1 333	743.71 2800.48 195.80 11495.53	743.71 2800.48 195.80 34.52	21.54*** 81.12** 5.67* 

\*p<.05 \*\*p<.01 \*\*\*p<.001

<그림 2>에 의하면, 또래수용도의 수준이 높

은 집단은 단짝친구 지지의 수준에 관계없이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의 수준은 높지만, 또래수용도의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단짝친구의 지지 수준에 따라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즉, 또래수용도가 낮아도 단짝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또래수용도와 단짝친구 지지의 상호작용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연구목적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남녀아동 62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 어머니의 지지 순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에 의해 높게 수용될수록, 어머니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가정적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또래수용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즉 어머니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또래에 의해 높게 수용될수록 아동의 가정적 자아는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성격적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또래에 의해 높게 수용될수록 아동의 성격적 자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가 가장 영

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적 자아에 서는 어머니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자아의 상승을 위해서는 그 자아의 발달과 밀접한 상황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김희화와 김경연(1998)의 주장과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성격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신체외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학년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체외모 자아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지지, 또래수용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또래수용도, 어머니의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수용도, 어머니의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의 경우 또래수용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변화기에 발생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가 부모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들(이춘재 외 8인, 1987; 장휘숙, 1995; Santrock, 1996)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청소년의 독립 및 자율성 획득 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영향력이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아동의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지지가 낮더라도 단짝친

구의 지지가 높으면 아동의 신체능력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단짝친구의 지지가 어머니의 낮은 지지 수준에 대해 보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은 다수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관계망에서 획득하지 못한 것을 다른 관계망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주장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또래수용도의 영향력이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되는지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영역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또래로부터 낮게 수용되더라도 단짝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단짝친구의 지지가 또래에 의해 낮게 수용되는 것에 대해 보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짝친구가 또래로부터 낮게 수용되는 아동의 빌랄적 손상을 보완해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Howes, 1988; Parker & Asher, 1993; George와 Hartmann, 1996)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났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단짝친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단짝친구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머니의 지지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일부 중재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정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아동 중기와 초기 청소년기 아동에게 있어 단짝친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단짝친구

의 지지가 중재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짝친구 외에 다른 사회적인 관계망에 존재하는 타인들 즉, 아버지, 형제, 자매 및 교사들에 의해 중재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에서는 또래수용도의 영향이 어머니의 지지 영향보다 크며 가정적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영향이 또래수용도의 영향보다 크다.

둘째, 아동의 신체외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셋째, 전체아동의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영향력은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된다.

넷째, 중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의 영향력은 단짝친구의 지지에 의해 중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연령으로 구분하여 밝혔으며,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에 대한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와 같이 횡단연구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와 자아존중감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으로 단짝친구만을 고려하였는데 아버지, 교사, 형제 등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 자아존중 ·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민(1988). 사회조직망내의 대인지각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채(1985). 통계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김해식(1987). SPSS -컴퓨터 분석기법-. 서울 : 박영사
- 김희화 · 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 ·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0(1).
- 윤미경(199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1999).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외(1995).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장희숙(1995). 청년심리학. 서울 : 장승.
- 최보가 ·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최도개발에 관한

-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 Asher, S. R. & Parker, J. G.(1989).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 problems in childhood. In B. H. Schneider, G. Attill, J. Nadel, & R. P.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pp. 5-23). Boston : Kluwer.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1995).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al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randall, R.(1973). *The measures of self-esteem and related constructs*. In J. P. Robinson, & P. R. Shaver(Eds) :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pp. 45-168). Ann Arbor, Michigan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Duck, S.(1983). *Friends for life : The Psychology of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 St. Martin's.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o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eorge, T. P., & Hartmann, D. P. (1996). Friendship networks of unpopular, average, and popular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67, 2301-2316.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 ~ 385). New York : Wiley.
- Harter, S.(1988).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Greca(Ed.), *Childhood Assessment : Through the eyes of a child*, Allyn and Bacon, 292-325.
- Hoffman, M.L. & Saltzstein, H.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 Howes, C.(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53(1), Serial No, 217.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ren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rnal Studies.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Gottman, J. M.(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 context :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95-131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Shavelson, R. J., & Terbovic, M. L.(1976). Self 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61-477.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 theory and re-*

- search on selected topics(Vol. 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ahn-Waxler, C., & Radke-Yarrow, M.(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26.